

# 교통사고 딛고 '빛나는 노장 투혼'

## 함평군청 여자레슬링 37세 김형주,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우승

### 3월 올림픽 쿼터 대회 출전 "최종관문 넘어 도쿄 가겠다"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어."  
한 때 한국여자 레슬링의 간판이던 김형주(37·함평군청)가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나온 얘기다. 본인도 은퇴를 고려한 터이다.  
하지만, 그를 아끼는 레슬링 관계자들은 은퇴를 만류했다. 마땅한 후계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국내 여자 레슬링 선수로는 유일하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고, 4년 뒤 런던 올림픽 무대까지 밟았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받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여자 레슬링 선수 중 유일

하게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 때 은퇴를 결심했던 김형주는 마음을 다잡고 새 소속팀 함평군청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하지만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여자 자유형 53kg급 결승에서 자신보다 15살 어린 박은영(21·광주 남구청)에게 1-2로 무릎을 꿇었다.  
부상투혼으로 매트에 나섰지만 젊은 박은영을 잡기에는 힘이 부쳤다. 지난해 11월 소속팀의 중국 선양 전지훈련 중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형주를 태운 택시가 앞차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하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불과 일 주일여 앞둔 시점이었다.  
김형주는 "사고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은몸 근육이 뒤틀리며 통증이 따라왔다. 어지럼증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주는 벼랑 끝에 몰렸다. 그는 2차 선발전에서 우승한 뒤 1차 선발전 우승자 박은영과 최종선발전을 펼쳐 승리해야 했다.  
김형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14일 함평군 함평문화센터에서 열린 도요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우승한 뒤 박은영과 최종선발전에서 4-2로 승리했다.  
도요올림픽 1차 관문을 통과한 김형주는 3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쿼터 대회를 통해 올림픽 출전권을 노린다.  
김형주는 "1차 선발전 이후 몸 회복에 전념하느라 훈련량이 적었는데, 다시 훈련량을 늘리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주의 도전이 다시 시작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14일 전남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도요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여자 자유형 53kg급 최종선발전에서 2차 선발전에서 우승한 함평군청 김형주(왼쪽)와 1차 선발전에서 우승한 광주남구청 박은영이 대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하반신 장애인 인간 승리...마라톤 33시간 50분 완주

### 보조장치 완주 기록 경신

미국 남동부에서 열린 마라톤 경주에서 반신불수 30대 남성이 근 34시간 만에 결승선을 통과, 보조장치 완주 기록을 경신했다.  
인간승리의 주인공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사는 33세 하반신 장애인 애덤 콜리츠키.(사진 가운데)  
콜리츠키는 지난 11일(미국동부 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찰스턴 마라톤에서 외골격 보조구(假脚) 로봇을 착용하고 33시간 50분 23초만에 코스를 완주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주최 측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는 외골격 보조구 착용 마라톤 주자의 이전 최고 기록(71네스북 기준) 36시간 46분을 3시간 가량 단축한 것이다.

콜리츠키는 기네스 측에 새 기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취재진에 밝혔다.  
그는 이날 힘겹게 걸음걸음을 내디디며 자원봉사자와 관중의 격려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콜리츠키는 대학에 다니던 2005년 12월 차량으로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사고 직후 콜리츠키는 의료진으로부터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들었지만 10년 후 외골격 보조구 로봇을 착용해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외골격 보조구 로봇은 신경이 마비돼 걸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장착해 근육격계 역할을 하는 일종의 웨어러블 로봇이다.  
그는 2016년에 비영리 단체 '나는 다리를 가졌다'를 세우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100만보 걸음 투어' 목표를 세우고, 외골격 보조구를 입고 미국 전역에서 마라톤 경주에 참가해 총 100만보를 걷는 과제에 도전 중이다.  
그는 현재까지 다양한 단축 마라톤에 47회 참가했으며, 작년 3월에 이어 폴코스 도전 두번째 만에 완주에 성공했다.  
콜리츠키의 '인간승리' 드라마 뒤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라톤 도전 때마다 차를 몰며 교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콜리츠키는 "현재까지 47회 경기에 참가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함께 했다"고 말했다.  
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교통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며 아들의 뒤를 따른다.  
이번 찰스턴 마라톤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대회 이틀 전인 9일 밤 10시 30분 코스를 시작했다.



따라 걷는 자원봉사자들은 보조구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체중이 실리는 손을 마사지하며 콜리츠키의 도전을 도왔다. 콜리츠키는 영국 BBC방송과 화상 인터뷰에서 "척추 손상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부상이나 장애, 어떠한 역경도 결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 청각장애 이덕희 부상 투혼

### 호주오픈 예선, 근육 경련 딛고 역전승

청각장애 테니스 선수 이덕희(22·서울시청)가 경기 도중 일어난 근육 경련까지 이겨내고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예선 2회전에서 올랐다.  
이덕희는 15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예선 1회전에서 알레산드로 지안네시(145위·이탈리아)에게 2-1(2-6·7-5·7-6<10-7>)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이덕희는 3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0-4까지 끌려간 상황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근육 경련까지 생겨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이덕희는 메디컬 타임아웃을 부른 뒤 응급 처치를 하고 다시 코트에 나섰고 이후 4-7에서 연달아 6포인트를 따내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청각장애 3급인 이덕희는 지난해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윈스턴세일럼 오픈에서 청각 장애 선수 최초로 투어 단식 본선 승리를 따내는 기록을 세웠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단식 동메달을 획득, 2006년 도하 대회 이형택의 은메달 이후 한국 선수로는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테니스 남자 단식 시상대에 오르기도 했다.  
아직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경력이 없는 이덕희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호주오픈 예선에 도전하고 있다. 예선에서 3연승을 해야 본선에 나갈 수 있는데 2017년과 2018년에는 예선 3회전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이덕희는 이번 호주오픈을 앞두고 13일 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호주 유력지인 이 신문은 '이덕희, 들리지 않는 것에 지지 않기로 마음먹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청각 장애의 어려움에도 끊임없이 세계의 벽에 도전하는 이덕희를 조명했다.  
/연합뉴스

# 중국 강서성 청소년 클럽, '호남대 축구' 배운다

### 회원 16명 3박4일동안 이론 교육·현장 훈련 돌입

중국 강서성 핑상시아우성 청소년스포츠클럽 축구연수단이 호남대에 훈련 캠프(사진)를 차렸다.  
호남대 축구 프로그램을 체득하기 위해서다. 호남대는 축구학과를 두고 있으며 축구부는 창단 이래 통산 여덟 차례나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호남대 국제교류본부(본부장 손완이)는 지난 14일 교무위원회에서 중국 강서성 핑상시아우성 청소년스포츠클럽 축구연수단의 입교식을 열었다.  
입교식에는 장재호 호남대 축구학과장, 핑상시아우성 청소년스포츠클럽 장웨이펑 총경리, 유영 축구부 총괄, 라오위 코치, 핑상시아우성 청소년스포츠클럽 회원 16명이 참가했다.  
연수단은 3박 4일 동안 기초훈련, 응용훈련 등

축구 관련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구학의 전망, 축구산업의 미래 특강을 듣고 이론학습도 병행한다.  
강서성 핑상시아우성 청소년스포츠클럽은 국가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회원들 600여명 두고 있으며, 농구·축구·배구 등 스포츠 관련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축구클럽은 강서성 랭킹 2위에 오를 정도로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완이 호남대 국제교류본부장은 "연수 참가자들이 호남대 축구 프로그램의 우수한 내용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산행안내

1월18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월18일(토) 장흥·강진 수인산(561m). 수리봉 정기산행, 봉선동 롯데슈퍼앞 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7:20, 월드컵북문주차장 통째앞 7:30, 한국병원앞 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광주호산회 1월18일(토) 장흥 역불산 말레길,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8:00 롯데백화점, 08: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월19일(일)  
▲광주산이모산악회 1월 19일(일) 부산 갈맷길(2-2구간) 트레킹, 모아레포츠 06:00, 금호지구대 06:05, 무각사 06:10, 시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날레 주차장 06:30 ※다음카페:광주산이모산악회 ☎010 3603 7718  
▲한길산악회 1월 19일(일) 전남 고흥 봉래산 산행, 상무정 07:00 무각사 07:10 광주역(e-마트편의점앞) 07:20 비엔날레주차장 07:30 각화동농산물공판장 07:40 ※ 다음카페: 한길산악회 ☎ 010 4602 3230

1월2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월22일(수) 전남 곡성 동약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월29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월29일(수) 경남 남해 화전별곡길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2월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2월1일(토) 장성/고창, 구황산-추산봉 정기산행, 봉선동 롯데슈퍼앞 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7:20, 월드컵북문주차장 통째앞 7:30, 한국병원앞 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2월2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2월2일(일) 민주지산(총정, 전라, 경상 삼도를 가르는 삼도봉을 거느린 명산) 1241m, 06:40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 홈플러스 ※다음카페: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2월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2월5일(수) 경남 통영 사랑도 칠현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20, 교직원공제회관 06:30, 예술회관후문 06:40, 각화동 현대물류앞 06:5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2월1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2월12일(수) 전북 부안 우금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해치지않아
2관	나쁜 녀석들: 포에버, 스피이스
3관	천문: 하늘에 묻는다
4관	해치지않아, 슈퍼 배어
5관	백두산,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6관	닥터 두리틀
9관	해치지않아, 나쁜 녀석들: 포에버
7관	씨네커플 닥터 두리틀, 겨울왕국 2
8관	씨네커플 시동, 미드웨이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 광주국악상설공연

2020. 1. 1.(수) ~ 매주 화~토 5:00pm  
광주공연마루

#### 2020 신년음악회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350회 정기연주회  
2020. 1. 16.(목) 7:30pm  
광주문예회관 대극장